

회의록

회의명: 2015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장소: 대학본관 3층 중회의실

작성자: 황병숙

일시: 2016년 1월 7일(목) 14:00~15:40

1. 참석자: 재적평의원 11명중 7명 참석

송우진 의장, 유인하 부의장, 고정휴 평의원, 엄한웅 평의원, 조현재 평의원,
김상수 평의원, 구태완 평의원 (이상 7명)

* 불참: 서의호 평의원, 박성진 평의원, 김창수 평의원, 유주현 평의원 (이상 4명)

* 배석: 기획예산팀 손임락 팀장 (간사), 황병숙 (서기)

이수진, 이상직, 백창원

2. 안건

○ 심의 안건

- 제1호: 대학 행정조직 변경에 따른 학칙 개정(안)

○ 자문 안건

- 제1호: 2016학년도 예산안

3. 주요 내용

○ 대학평의위원회 안건 논의에 앞서 이번에 새로 위촉된 제5기 학부 학생대표에 대한 총장의 평의원 위촉장 수여가 있었음.

○ 대학평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의거, 간사의 성원보고에 이어, 의장이 2015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제1호 심의안건 : 대학 행정조직 변경에 따른 학칙 개정(안)

○ ‘대학 행정조직 변경에 따른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팀장의 설명이 있었음.

[심의 결과]

○ 참석 평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대학 행정조직 변경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원안 승인함.

현행	개정(안)
제4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둔다. 1. 부속기관: <u>교육개발센터</u> , <u>리더십센터</u> , 어학센터, 상담센터, 포항공대신문사, 기술지원센터, <u>기술사업화센터</u>	제4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둔다. 1. 부속기관: <u>교육혁신센터</u> , 어학센터, 상담센터, <u>스포츠지원센터</u> , 기술지원센터, 포항공대신문사

[주요 의견]

- 리더십센터와 교육개발센터가 통폐합되면, 기존 리더십센터에서 지원하던 알파 등의 사업들은 교육혁신센터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교육혁신센터에서 기존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기획예산팀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와 관련해서 교육혁신센터를 교무처 산하에 두게 되면, 교육지원 기능 보다는 교육개발 기능에 더 중점을 둘 우려가 있으며, 특히 리더십 육성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바들도 고려해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김상수 평의원의 의견이 있었음.
- 대학원업무팀이 폐지되면 기존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학생선발업무는 입학팀에, 장학/병역특례 등의 지원업무는 학생지원팀으로 이관하게 된다는 기획예산팀장의 답변이 있었음.
- 부처장 직제 변경건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며, 예상되는 보직은 어디로 보는지에 대한 질의와, 취지 설명시 조직 슬림화 및 예산절감 등을 언급하셨는데, 본부 조직은 크게 변경사항이 없는 듯하며, 부처장의 경우 조직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이에 대해, 본 의도는 부처장을 늘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획, 연구, 행정처 등 특정처에만 부처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 내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 이를 전체 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필요시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조직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는 기획처장과 기획예산팀장의 답변이 있었음.
- 아울러, 당초에는 학과/연구소 행정팀 부분에 있어 대학원과정만 있는 행정팀의 경우 유사분야 학과 행정팀과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각각 주임교수가 다른 문제가 있어, 대학원과정 학사조직과 유사분야 학과의 주임교수 상시겸직 및 행정팀장 겸직 체제를 통해 단계적으로 행정팀 통폐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기획예산팀장의 부연설명이 있었음.
- 기획처는 대외협력처와 통합되면서 산하 팀이 많아 처장 혼자 일을 처리하기 힘들 수 있어 부처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획처만 총장 직속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기획처는 총장의 대외업무 및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보좌기능을 하는 관계로 총장직속이 바람직하며, 대외협력처가 현재 총장직속이며, 대외협력처가 생기기 전에는 기획처가 총장직속이었다는 기획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우리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시설과 강사진을 활용하여 대학 전체의 스포츠 활동을 통합지원하게 될 스포츠지원센터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스포츠 동아리 등과 관련해서 추가 예산지원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예산 관련 부분은 운영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시 지원 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스포츠지원센터의 신설과 관련해서 일부 초기 예산 외에는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기획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제1호 자문안건 : 2016학년도 예산(안)

- ‘2016학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교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팀장이, 가속기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봉수 가속기 부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며, 평의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음.

[주요 의견]

<교비회계 부분>

- 앞 부분에서 언급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뒷 부분에서 재원별로 나눠 표기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사업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Visibility 제고, 우수교원 유지, 연구·사업화 지원, World-leading 사업, 전략적인 신규 교원 충원에 따른 신입교원 초기정착비 등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이에 대해, Visibility 제고 사업으로는 온라인 홍보 강화, 대학평가경쟁력 강화, AP 포럼, 포스테키안 책자 발간 등이 있으며, 우수 교수 유치는 특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수 교원 유지 사업에는 POSTECH Fellow, 초빙석좌교수, 조교수 국제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전략적인 신규 교원 충원에 따른 신입교원 초기정착비 등은 석학교수 유치(전임, 비전임)와 통상적인 신입교원 초빙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신입교원 초기 정착비는 학술연구비와 고정자산으로 나눠 지원한다는 기획예산팀 실무자의 답변이 있었음.
- 학생경비가 다소 증가한 것 같긴 하나, 등록금과 기숙사 사용료 인상대비 실질적인 학생지원예산이 별로 늘어난 것 같지 않음.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오를 만큼 학생들에 대한 지원 또한 늘었으면 한다는 김상수 평의원의 의견이 있었음.
- 기숙사사용료 인상이 리모델링비가 부족하기 때문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기숙사 사용료는 전액 적립하여 기숙사 건립 및 리모델링 등 기숙사 관련 예산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에 따른 부족분은 대학 특별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음. 기숙사 사용료 및 인상분은 미래 리모델링을 위한 적립이라고 보면 됨. 또한 리모델링한 기숙사와 하지 않은 기숙사에 대한 차등은 있어야 하며, 현재 리모델링한 기숙사에 대해서만 기숙사사용료를 인상하고 있다는 기획처장과 기획예산팀 실무자의 답변이 있었음.
- 당초 예산대비 추정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법인으로부터 추가 출자를 받아 학생경비로 지원한 특별학생지원경비와 신입교원 유치 및 C5, 국가연구기관 분원 유치, 식당 리모델링 등이 포함된 World-leading 사업비 등에 있어 일부 미집행, 사업 축소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해 계획대비 집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기획예산팀 실무자의 답변이 있었음.
- 연구비 수주액이 감소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초기 투자비는 어떤 용도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구성원 수요조사결과 80~90명 정도로 조사되었는데, 모두 수용하기는 힘들고, 49명 수용 기준으로 포스플렉스내에 설치하여 2016학년도 하반기 정도 open할 계획으로 있으며, 초기 시설구축 및 리모델링, 설비, 집기비품 등과 관련한 경비라고 보시면 된다는 기획예산팀 실무자의 답변이 있었음.
- 캠퍼스 마스터 플랜 수립은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2005년에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이후 발생한 시설 변동사항 및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향후 교지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기획예산팀 실무자의 답변이 있었음.
-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이는 정년이 60세가 되지 않는 기관에서 고려하는 것이며, 우리대학의 경우 이미 정년이 60세 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정년을 늘이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 피크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는 기획예산팀 실무자의 답변이 있었음.
- 우리대학의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부분 관련 예산의 비중이 낮은 듯 하며, 재학생들이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대해 우리대학의 경우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창조도시를 통한 경제발전 등과 관련하여 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총장님이 활동하시는 등, 봉사차원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물적인 부분은 포항시가 지원을 하고, 우리대학은 인적자원으로 기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또한 포항시가 원하는 것은 포항의 경제발전이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강소기업육성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대학은 기술지주회사에 3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창업을 유도하여 창업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기획처장의 답변이 있었음.

- 상기 언급한 부분은 지역 community에 대한 대학의 기여로, 이 부분은 별도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개교 30주년과 관련해서 대학이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획기적인 사업이 있어야 할 듯하며, 침체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가시적인 사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학생들이 앞장서서 학과 홈커밍데이를 하루에 모아서 하는 등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상수 평의원의 의견이 있었음. 이에 대해 30주년 기념사업은 학생, 동문과 연계해서 추진위원회를 꾸려 추진할 계획이라는 기획예산팀장의 답변이 있었음.
-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과의 연계를 위한 셔틀버스 지원, 기간내 성적입력 등 가장 기본적인 면서 상호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김상수 평의원의 추가 의견이 있었음.

<가속기 부분>





- 2016년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는 의견과 관련,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2016년은 장비들에 대한 warranty 기간이고, full 가동하지 않으므로 전기료 등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반영된 예산이며, 2017년에는 warranty 기간 종료, full 가동 등이 반영된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기 위해 노력, 준비중에 있다는 가속기 부소장의 답변이 있었음.

기타

- 회의에 앞서, 학부 학생대표 평의원에 대한 총장의 위촉장 수여와 인사말씀이 있었음.
- 회의 개최 이후 안건 심의/자문에 앞서 의장의 신상발언이 있었음.
 - 2015년 제5기 대학평의원회 구성시는 평교수로서 평의원에 선출되어 의장까지 맡게 되었는데, 작년 9월부터 대학의 보직을 맡게 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전례 및 사례도 없으며, 관련 규정도 없는 상황이긴 하나, 보직을 맡고 있으면서 의장을 맡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므로 의장직은 내 놓고, 평의원으로만 활동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이에, 작년 12월 회의시 언급을 하려고 하였으나, 의장 선출을 위한 성원(재적 평의원 2/3)이 되지 않아 말을 꺼내지 않았음. 오늘도 재적평의원 11명 중 7명 출석으로 의장 선출을 위한 성원은 되지 않지만, 새해도 되었고, 오늘 중차대한 안건을 심의/자문하게 됨에 따라 오늘부터 차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유인하 부의장이 대행해 주셨으면 함.
- 대학의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으면서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에 의장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함. 다만, 오늘 정족수가 되지 않아 의장선출을 할 수 없으므로 오늘까지는 현 의장이 맡아 주시고, 차기 회의에는 2/3가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차

기 의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유인하 부의장의 의견이 있었으며, 나머지 평의원들이 동의함.

- 차기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결산안 자문을 위해 4월 초에 있을 예정이라는 기획예산팀 실무자의 공지가 있었음. 끝.

담당자	 교수	01/16					
참석자							
담당자	유인하	교수		교수	영한웅	팀장	

기 의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유인하 부의장의 의견이 있었으며, 나머지 평의원들이 동의함.

- 차기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결산안 자문을 위해 4월 초에 있을 예정이라는 기획예산팀 실무자의 공지가 있었음. 끝.

담당자

교수

참석자

담당자

교수

교수

팀장

김상수 평의원

구태완 평의원

김상수

구태완